

유채꽃

20091101 김규형

어디선가 노란 병아리 같은 것이
나에게 손짓을 해온다.

아주 향긋한 냄새와
밝은 어린아이의 미소를 지으며

그리곤 나에게 속삭인다
‘우리 예쁘죠?’

자기네들이 예쁘고
화려한 것은 알고있나보다...

몽룡에게 쓰는 편지

20091102 김민우

내 사랑 왜 이제야 왔나요
이런 내 맘 알기는 한가요

이런 나를 두고
꼭 떠나가야만 하나요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이런 내 맘 알기는 한가요

매일 아침 사랑스런 속삭임으로
깨워주는 그대가 보고싶어요

님의 침묵

20081140 주현태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있었고
이별이 있기에 재회가 있었다
재회가 있기에 이별이 있었고
이별이 있기에 그대를 잃었다

그대를 잃음으로써 나는 심장을 잃었다
심장을 잃어서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나의 몸 속에 있는 심장의 존재감을 잃은 듯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을 잊었다.

나의 다른 심장은 어디 있느냐고
점점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본다 1 시 2 시
3 시 빌어 먹을 시계는 점점 4 시로 흐르고
있다.

물안개

20091106 김혜수

지난날 몇일동안
내 마음 한구석이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무엇인가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건 지금 당장의 갈망뿐
진정 그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별거 아니리라 생각해보려 해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그것을 찾고 있었다.
오늘날 새벽녘
첫차를 타고 오던 중 창가를 보니
아!
내 눈 내 마음에 가득 찬 산중턱의 물안개

국문과 모두 하나가되었던 한국문학탐방

20081101 강주희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학탐방을 떠나는 날 아침, 아직은 찬 기운이 역력한 봄날 아침이었다. 한 짐 가득 꾸려서 한 손 가득 들고 학교로 향하였다. 연암관 입구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3박 4일 동안 나와 함께 할 고속버스였다. 문학탐방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고 우리는 차차 떠날 준비를 하였다. 버스에 짐을 싣고 하나 둘 자리를 채워가며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며 문학탐방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괴산군에 위치한 홍범식 고택이었다. 고택의 모습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어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발표를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도 하고 화양구곡으로 이동하였다. 발표할 장소인 암서재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절로 만들어지고 물도 흐르고 봄이 절로 느껴지는 듯 했다. 그렇게 암서재에 도착하였다. 맑은 물이 흐르고 커다란 바위들이 이리저리 놓여있는 사이로 위치한 암서재의 모습은 웅장하고 거대하지는 못하였지만 운치가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발표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정지용 생가를 방문하고 한용운 생가도 방문하고 동백정에 도착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에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모두모여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첫날은 끝이 났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았다. 어둡기만 했던 새벽하늘을 붉게 물들여가는 해의 모습은 정말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였다. 수평선위로 서서히 나타나는 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려 아무리 셔터를 눌러보아도 내 눈에 직접 보이는 만큼은 아니라 아쉬울 뿐이었다. 국문과 많은 학우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기도 했다. 그렇게 일출을 본 후 붉게 핀 동백꽃을 지나 다시 일정을 시작하였다. 정극인 가사비를 보고 무성서원을 출발하여 정읍사 기념공원을 갔다가 남원 혼불마을에 도착하였다. 혼불문학관 앞에서 발표 시간을 가졌다. 햇빛이 어찌나 따사롭던지 우리를 반기는 햇살같았다. 푸른 잔디위에 앉아서 우리는 발표를 했다. 소설 '혼불'의 배경지에 직접 와서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작품을 공부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학습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만복사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인연이 얹힌 전설적인 누각으로 잘 알려져있는 광한루로 향하였다. 광한루원에는 춘향이의 굳은 절개를 영원히 흠모하기 위해서 지어긴 사당. 춘향사당도 있고 오작교도 있었다. 우리는 오작교에서 단체 촬영도 하였다. 월매집도 구경하고 춘향관에서는 그림과 함께 간추려진 춘향전을 다시 한 번 읽어 볼 수 있었다. 그네뛰기, 제기차기, 말 타기 등등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좋았다. 마치 춘향이가 된 듯 그네도 뛰어보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렇게 둘째 날 여정도 끝이났다.

셋째 날에는 곡성군 관음사에 갔다가 장흥 안양면 기산리에서 백광홍 가사비도 보고 용산면 모산리에서 송기숙 생가도 보았다. 회진포구에서도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배를 타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물가에서 발표를 하니 좋았다. 다음으로는 보성녹차밭에 갔는데 TV 광고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녹차들이 한가득 영어어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을 했다. 하지만 푸르른 빛을 한가득 머금고 피어나있는 어린 녹차잎들이 충을 이루며 자라나고 있는데내 마음까지 푸르른 빛으로 가득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향일함에 도착하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국문과 학우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갔다.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금오산 향일암에 올랐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향일암을 향하고 있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도 흘려가며 향일암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았다. 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바다의 모습은 정말이지 최고였다. 내 마음까지 탁 트이는 것만 같았다.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바위도 보고 사진촬영도 잊지 않았다. 그곳에서 맞는 바람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나올 때만 해도 피곤하고 귀찮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그렇게 내려가서 먹는 아침식사는 말할 것 도 없이 꿀맛이었다. 다만 많은 학우들이 그 느낌을 함께 느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우리는 오동도를 관람하고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에서 학우들과 함께 학습하고 지식을 얻는 것도 내게 참으로 이로운 시간이지만 이번 문학탐방은 정말이지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면서도 국문학도로서 문학을 오감으로 느껴 볼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였다. 학습 뿐 아니라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더욱 친해지고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다. 1학년 때도 문학탐방을 갔었는데 신입생으로서 참여했을 때랑 새롭게 후배들이 생겨서 후배들과 함께하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대했던 만큼 유익하고 알찬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기쁘다. 서로 조사한 자료들을 발표하며 지식을 주고받으며 자연과 하나가되는 공간에서 함께 느껴가면서 정말 국문과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 행복했다.

유채꽃 휘날리며

20091107 나동환

십만 평을 가득 채운
유채꽃 십만 대군
태우려는 별 아래
웅장함을 드러낸다

십만 평을 가득 채운
유채꽃 십만 대군
파도 같은 바람 따라
일보전진 일보후퇴

십만 평을 가득 채운
유채꽃 십만 대군
향기로 무장하여
적들을 취하게하는

십만 평을 가득 채운
유채꽃 십만 대군
저 별들 떠나갈 때가
전투 시작의 신호

꽃밭

20041139 박은서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힘이 자꾸 빠지는 흐린 봄날에는
작은 꽃밭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
이리저리 벌떼들이 잉잉거리는 오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갖고 싶다.
물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는
절망하지 않는 작은 꽃밭 하나를
흐린 봄날에는 갖고 싶다.

봄날

20081106 김경례

꽃잎이 떨어진다
향단아
더 췌게 밀거라

도련님은
어디 계시는고
보이지 아니하네

보고싶은
나의 도련님
나의 마음을 아시리

꽃잎이 떨어지는
봄날
외롭고도 그리워라

벚꽃

20071116 박경윤

꽃잎이
떨어지다

잠시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꽃잎은
떨어진다

잠시이기에
더 소중한 것.

잠시이기에
더 아름다운 것.

하루를 선사하고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은
그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진다.

유채꽃나비

20091108 노한나

유채꽃,
샛노랑게 피어 하나하나
자신만을 봐달라는 듯
바람에 살랑거린다.

유채꽃,
하나하나 살랑거리는 몸짓에
나도 모르게 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펼럭펼럭,
바람에 이는 몸짓이
노오란 나비가 날아가는 줄
착각을 했었다.

유채꽃나비,
가녀린 몸짓으로
바람을 견디는 꽃
유채꽃

그 날 내가 봤던
그 꽃을 나는
노오란 유채꽃나비라
이름을 정했다.

그대의 생가에서
-정지용 생가를 다녀와서-

20041148 석민수

여기 生家엔 기척 소리도 없어
우두커니 살아 선, 집만
가끔씩 들리는 客에게
제 가슴 열어 보일 뿐이다

반들거리는 마루를 쓰다듬으며
생전에 그가 이 곳 어딘가
흘렸을 법한 진부한 詩句 없을까

그대의 생가에서
천재가 되지 못함을 泣訴하고
내 자라지 못하는 언어의 나무를 흔들고
질투는 지문으로 기둥을 할퀴다

그대 지금 나직이 한 마디 해 주었으면
팬, 찡, 다.

향수의 재발견

20081111 김주경

새 향수는 자극적이라, 한동안
가슴에 묵직한 돌을 품고 앓게 만든다
하늘을 통해 배달 온 어머니 잔소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날카롭게 짓누르는 목소리 뒤로
묵직하게 떨어지는 한숨이 있다
어머니 향수 냄새
3박 4일 떨어져 있던
집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

일출

20091109 류호성

매일 뜨는 해일뿐인데
오늘은 달라 보인다
남도南都에서 바라보는 저 커다란 전구
수평선 끝에서 머리를 들면
나는, 우리는 환호로 화답한다
희망의 일출이 되었으면
시작의 일출이 되었으면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나의 하루

유리창

20091111 박경하

차가운 유리창에 흰나비가 앉았다
혹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
‘너는 나의 아이인가?’ 하고 물어도
하얀 나비는 매정하게도 날아갈 뿐

차가운 유리창에 다시 흰나비가 앉았다
혹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
‘너는 나의 아이인가?’ 하고 생각하여
추울새라 입김을 불어주어도 매정히 날아갈 뿐

나비의 온기를 느끼고파
유리창을 홀로 외로이 뒹다
하늘의 눈부시게도 시린 별이
내 눈에 비쳐 그저 눈물만 나올 뿐

아아, 정녕 나의 나비같은 아이는
산새처럼 저 산으로 날아갔는가!

화안(花顔)

20051103 고장기

담 너머로 하얀 꽃이 피고 지고 하는구나
그 고운 꽃 떠오르면 내 마음도 떠오르네
바람에 나부끼는 추천(鞦韆) 위의 그 꽃
춘향이 화안으로구나

애뜻한 사랑

20081116 문숙경

저기 멀리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도령이 보이네

이도령이 보일락 말락
이도령에게 닿을까 말까

내 치맛자락이 펄럭펄럭
내 마음은 콩닥콩닥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이런 내 마음 향단이가 알아줄까
이런 내 마음 방자가 알아줄까
정작, 이런 내 마음 이도령은 아실런지

수놓다

20091112 박빛

큰 녹색 도화지에
검은 수를 새긴다.

호롱불

크나큰 지루함을 닮은 바다
크나큰 피곤함을 닮은 하늘
그 비좁은 사이를
작디작은 웃음을 닮은 호롱불하나가
새벽의 시작을 알려온다

탐방후기

20091114 박지훈

설레는 마음으로 4월 1일 아침이 밝았다. 3박 4일의 긴 여정에 사실 부담이 컸다. 집도 아니고 밖에서 4일을 보낸다니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버스에 오르고 3박 4일의 긴 여정이 시작 되었다. 이른 시간에 출발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 밖 풍경을 보며 어느덧 첫 목적지에 도착 했다. 임격정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정작 작가에 대한 사실들은 모르고 있었다. 난 답사라 해도 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하기보다 그저 관광하는 기분으로 갔는데 답사 역시 훌륭한 하나의 수업이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한 번쯤 접해본 문학작품들의 작가의 생가 등을 방문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했다. 물론 아쉬움도 크다, 한국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작은 인간의 크기로 보자면 굉장히 넓은 나라다. 그런 한반도를 버스로만 이동 하자니 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3박 4일이라는 긴 시간 이지만 시간에 비해 방문하는 곳이나 또 방문 후에 천천히 살펴 볼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물론 아쉬움 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탐방 이였다. 문학에 대한 이해, 또 보지 못한 것 들을 보며 얻는 경험, 무엇보다 3월 한달간 학교를 다니며 친해졌다고 생각한 과 선배, 또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 졌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답사 자체의 내용 보다 과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즐거웠다. 4월 3일 3일째 밤이 되자 까마득했던 첫 날 아침의 기분은 간 데 없고 어느새 마지막 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다. 3박 4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 대학에서의 여행은 M.T 같은 그저 친목도모의 여행이 다 인 줄로만 알았던 나에게 이번 답사는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였다. 앞으로 4년간 학교를 다니며 답사를 갈 기회가 많을텐데. 앞으로의 답사, 더욱이 군대를 다녀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답사역시 큰 기대가 된다.

동백이 진다

20091115 배민지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해가 뜰 것이다
해가 질 것이다

충청남도, 오늘은
해가 지고 있다

19 살 찌든 반복으로 아련한 기억이 된
나의 붉은 섬광이
내 마음과 닿는
수평선까지 밀려온다

그래, 나는 지금 동백정에 올라있다
나의 석양을 위해

노랑 수술 중심 빨강 꽃잎, 동백꽃.
흡사 일몰의 모습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근사한 무료전시회는 몇 분에 끝나고
불과 몇 분에
내 20 살의 섬광은
찌든 기억 속에서 화려한 동백꽃으로 피어난다

여행

20051144 홍현진

아그야 시방 여기가 어디냐?
동학운동의 고향
슬픈 망부석설화 정읍사
춘향이 이몽령의 만난 곳 광한루
여기는 전라도

시방 여기가 여기예유?
정지용의 고향
만해 한용운의 고향
송시열의 고향
여기는 충청도

얼라야 여기가 어디꼬?
섬진강이 흐르는
오동도가 있는
향일암이 있는
여기는 경상도

충청도가 있는
전라도가 있는
경상도가 있는
여기는 대한민국

3 박 4 일간 내가 돌아본
거기는 대한민국
문학인들이 살았던
여기는
여기는
대한민국

기행문

20091116 백민혜

탐방을 갈 지 안 갈 것인지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 탐방을 다녀온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버스를 너무 많이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이 불편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강력히 말할 수 있었다. 물론 내 성격이 조금 낮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3박 4일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서 무엇을 하며 갈지 멀미가 심했던 나는 고민 이었다. 그런데 선배님들과 게임도 하고 발표하기 전에 생각도 해보아서 차에서의 생활이 재밌었던 것 같다. 차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무슨 게임을 할까 얼마나 그곳이 멀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할 곳에 도착해 있었다. 피곤해서 잠도 자고 했지만 도착해서는 내가 몰랐던 여러 가지를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남들이 모르는 지식도 내가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 깊었다. 어수선하고 떨리는 발표였지만 내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져 왔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사람들과 한걸음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다. 내 발표를 기까지 여러 곳을 방문 하면서 여러 것을 배웠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움을 느꼈다. 밤에는 음주가무를 즐기며 선후배의 사이가 조금 더 다가가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서야 내가 탐방을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느껴졌다. 아름다운 곳을 많이 구경하였고, 우리 문인들의 생가를 방문하며 그들이 느끼고 썼을 글도 마음속에 새기고 왔다. 너무 재밌고 뜻 깊은 여행 이었으며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고 싶다. 솔직히 제일 좋았던 점은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한 것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는 것에도 있다. 여러 가지를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먹었는데 비빔밥 회 등등 회를 못 먹는 친구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 나에게서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다. 탐방을 다녀와서 선배님들과 조금이나마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많은 문학인들의 생애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뜻 깊은 여행 이었다. 대학에 있어서 뜻 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일몰

20091117 백소영

친구들과 같이 올라간 산 정상에서
흔하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새빨간 노을을 보았다.

우리들의 들뜬 마음을 정리해주듯
열기를 흡수해 뜨거울 것 같았던
새빨간 노을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저 일몰을 보며..

고(go)

20091118 송인정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세상으로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깊고 깊은 잠의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가 몰랐던 문학의 현장으로

우리는 왔다
우리는 왔다
내가 살아오면서 꼭 가야했던 그곳...

우리는 왔다
우리는 왔다
우리 문학이 살아 숨쉬는 그곳...

우리는 왔다
우리는 왔다
조상들이 땀과 열이 느껴지는 그곳...

유채꽃

20091120 왕효진

길가 옆 지나가다 보이는 노란 유채꽃.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버스를 세우고
잠시 노란 유채꽃과 함께하다.

길을 건너 좀 더 앞으로
길을 올라 좀 더 가까이
그 많은 유채꽃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도록.

꽃이 되고 싶다

20091121 유미나

꽃이 되고 싶다.

넓은 들판 함께 있는 그것이 되고 싶다.

한 평생 땅 위에 살지라도

밤하늘에 떠오른 달덩이처럼

물 위에 떨어진 한 송이의 꽃잎처럼

노오란 유채꽃이 되어볼까.

새빨간 진달래가 되어볼까.

빛 한 줄기 없는 어둠뿐일지라도

하늘을 동경하며 살겠다.

순간의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이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오늘 하루

20091123 윤다현

오늘 하루
맞이 할 수 있는 햇빛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웃음짓게 도와줄 봄바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스런 봄 꽃 향기에
달콤한 하루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쉬고싶던 나에게
오늘 하루 뜨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몰

20091146 홍에스터

시리게 푸르던 물결 위
세상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곳에서
오늘도 그는 사그라들고 사그라지며
어김없이 사라진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나날을
핏빛 비명만 연신 토해대며
눈부신 곳에서 깊이깊은 어둠으로
끝없이 잠겨간다.

그는 그의 반복되는 추락을
그와 함께 젖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견뎌내고 있다
찬란한 숨죽임을.

또 다시 떠오를 그를 꿈꾸며
가슴 깊이 차오른 환호를
삼키지 못해 내지르는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를 품에 넣고
수천 밤을 날아서 곤두박질친다.

하루의 막바지에서
도망치는 것만이 진리인 그가
결코 비루하고 남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 아래 닿을 수 없는데서
우릴 위해 빔어내는
내일이란 바람을 알기에.

어느 샌가 반 토막 난 그를
멀찍이 마주하던 날.
한걸음에 달려와 기꺼이 반겨주는 붉은 채취에
살포시 미소 지을 수 있음을
그에게 감사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 눈으로 본 한국문학

20031168 채진두

한국문학탐방이라는 과목이 개설 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서야 이런 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보지 못했고 4학년인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잊지 못할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탐방기간동안 가장 즐거웠던 점은 만날 책으로만 접하던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제목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역시 직접 보는 것보다 좋은 공부는 없는 것 같다. 뽁뽁한 일정속의 여행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 이렇게 많은 곳을 친한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함께 여행해보겠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배가 든든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여행하는 동안의 음식메뉴는 내 입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철철 넘쳐 흘렀다. 주꾸미로 시작해서 생선회로 마무리를 지으며 생각한 것은, ‘탐방비는 다 밥값으로 들어가는구나’ 였다. 그만큼 훌륭한 음식들을 먹으며 다녔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다녀온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

여행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는 아무래도 봄의 냄새를 만끽 할 수 있었던 유채꽃밭이 아니었나 한다. 어릴 때부터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산의 모양이 신기했는데 계다가 넓게 짙게 펼쳐진 노란 유채꽃밭은 내 마음까지 여유롭게 하는 모양새였다. 개인적으로 그 때 친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의 짜증까지 다 잊게 해 줄 정도로 입이 딱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한국문학탐방은 대만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던 과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친했던 사람과는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행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땀흘리신 교수님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할 따름이고 내 인생에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여행이 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아쉬움도 느낀다.

짧지만 길었던 3박 4일

20081144 한혜림

작년에 이어 어김없이 찾아온 한국문학탐방. 이번에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다녀왔다. 처음으로 맞이한 후배들과 새롭게 만난 선배들과 함께 3박 4일이라는 짧지만 긴 여정을 기대하면서 나의 두 번째 한국문학탐방을 시작되었다.

첫날 기억에 남는 곳은 송시열이 제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지냈던 화양구곡이었다. 입장료 내는 곳을 거쳐서 20~30 분정도 걸어서 들어가면서 나무와 풀을 지나 계곡과 장엄하고 커다란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으로도 아름다웠다. 날씨가 조금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불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전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꼭 책에서 한번쯤은 보았을 것 같은,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것만 같은 산과 함께 나무들 그리고 커다란 바위와 앞의 너무나도 시원하고 맑은 물을 전후로 두고 한 채의 집은 감탄사를 계속 내뱉을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다. 날씨가 조금 더 맑고 화창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자리에서 나왔다. 둘째날은 차안에서 움직이는 시간도 길고 힘든 하루였다. 내가 속해있던 조가 발표한 김시습의 만복사터에도 다녀왔다. 허허벌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발표를 뒤로하고 바로 매체에 많이 보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왔던 남원의 광한루에 도착했다.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남쪽이라 광한루 옆쪽에 길게 늘어선 벚꽃나무들이 너무도 인상 깊었다. 광한루 안은 매우 잘 정리되어있었다. 나무와 연못, 춘향의 사당과 꽃들 특히 연못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징그러웠다. 한국의 관광명소로써 아름다운 남원의 광한루를 구경할 수있었던 것이 좋았다. 셋째날은 선학동 나그네의 세트장과 이청준 생가를 들렀는데 이청준씨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다는 말과 그 생가가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고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사이에 유채꽃밭을 들렀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에 산과 밭 모두 유채꽃이 심어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많고 큰 땅에 모두 유채꽃이라니 작년 답사의 유채꽃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성녹차밭을 잠시 둘러서 보았는데 아직 새파란 잎이 아니라 조금 실망을 했다. 마지막 숙소는 바닷가 바로 위였는데 너무도 멋진 곳이었다. 특히 밖을 보았을 때 바다와 바다가운데 떠있는 한척의 배 그리고 섬들과 나무들은 외국여행을 온 것 마냥 멋졌다. 마지막 날에 여수의 오동도를 들렀는데 오동도의 춤추는 분수와 모노레일 그리고 나무와 꽃들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꼭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 들었다. 답사기간 내내 맛있는 음식들도 한껏 힘을 발휘했던 것 같다. 돌솥밥과 회, 해물탕과 비빔밥, 해물 순두부찌개와 전골 등 다양하고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음식들로 가득했던 이번 답사는 행복했다. 남쪽의 따뜻함과 만개한 꽃들 그리고 맑은 하늘과 즐거운 동기들과 후배 그리고 선배들, 교수님과의 즐거웠던 시간은 처음 기대했던 답사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어서 참으로 뿌듯했다. 신입생 입장이 아닌 입장으로 가게 되어 더욱 신기하고 재밌었던 시간으로 가득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큰맘 먹고 갈수 없는 우리나라 아랫 지방을 이런 기회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색다르고 개성있는 3박 4일 이었다.

선학동으로 가자

20091124 윤호진

따스한 바람이
내 온몸을
부드럽게 훑을 때,

아, 이제 또 봄이 오는구나!

아니다,
그래도 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선학동으로 가자.

시원하게 흐르는
좁은 길 바다가
봄 빛 맞으며 따스히 빛날 때,

하늘의 빛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 선한 아름다움으로
유채꽃은 넘실거릴 때,

내 마음이 아무이유 없이
따스함에 설레일 때,

그래,
봄이 선명하게 찾아오는
선학동으로 가자.

일엽편주

20091125 이근용

넘실대는 부표처럼
몸 가눌수 없다

굵은 팔다리로 헤엄치기보단
파도에 몸을 맡긴다

헤엄치는 법 자체를 모른다

‘내’ 팔, ‘내’ 다리
이런 것들 가져본 적 없기 때문일까

해변에서 휩쓸려 버린
녹색 부표 하나

돌아갈 수 없다

한국문학탐방
- 충남북 전남북지역(4 월 1 일~4 월 4 일)
-

20081146 홍초록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기대하며 2 학년이 되어서도 ‘한국 문학 탐방’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3 박 4 일이라는 짧지 않은 답사를 다녀왔다. 새로운 신입생 후배들도 들어오고, 복학한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채워져 있던 18 학점 중 3 학점을 빼고, 1 학점뿐인 수업이지만 답사를 택했다.

처음엔 내가 조장이 아니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조장이 되고 생각보다 힘든 일에 당황했다. 그렇지만, 1 학년 후배들을 내가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나도 이제 선배라는 생각으로 탐방에서의 조장을 수행했다. 다행히도, 나 혼자 힘든 일은 06 학번 객원언니들의 도움으로 탐방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답사 가기 전날, 편한 옷과 세면도구 등 간단히 챙기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다. 먼저 행한 곳은 괴산. 그 다음으로는 화양구곡. 화양구곡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깨끗한 공기가 나를 기분 좋게 했다. 비록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길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양구곡에서는 멀미도 떨쳐 버릴 만큼 기분이 상쾌했다.

첫 날 저녁엔 저녁을 먹기 전 동백정에 올랐다. 올라가는 길은 정말 추웠다. 작년 답사는 4 일 내내 화창한 날씨여서 소풍가는 기분으로 다녀왔는데, 이번 답사는 밤이 되자 차가워진 날씨에 아쉬웠다.

둘째 날은 내가 발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기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춘향이 살던 고을인 남원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남원은 이번 답사 지역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중 하나이다. 광한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자유시간이 꽤 길어서 이 곳 저 곳 둘러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꽃도 피고 맑은 날씨를 엄마께도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하며 주변 풍경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

셋째 날, 이청준 생가에서는 노란 꽃들 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보성 녹차 밭에 가서 녹차 아이스크림도 맛보면서 바람을 쐐었다.

답사를 하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곳은 마지막 답사 지역인 오동도이다. 오동도 안에 들어가 푸른 숲, 자연 속에 있으니 저절로 그 안에 누워 잠들고만 싶었다.

버스 안에서 이동하느라 힘든 몸을 이끌고 다음 답사지를 답사하기 위해 내려야 할 때는 몸이 피곤해서 귀찮기도 했지만, 답사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야할 때에는 답사한 곳이 너무 좋고 바깥 공기가 너무 좋아서 버스에 다시 타고 싶지가 않았다.

답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박물관들, 또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문학가들, 작가들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아서 나에게는 뜻 있는 답사였다고 생각한다. 국문과에 들어와서 여행도 하고 내가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작가들의 생활과 작품, 생각들을 접하니, 새삼스럽게도 우리 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잠 때문에 향일암에 못간 것이 아직도 너무 아쉽지만, 대학 생활의 봄을 즐기는 즐거운 답사였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91127 이지선

새벽같이 일어나 연암관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즐거움으로 들떠있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긴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일정표를 확인하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원의 광한루, 보성 녹차밭, 여수 오동도 모두 가보고 싶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충청북도도 나에게 익숙한 곳이다. 인생이라기엔 짧은 20년의 반을 충청북도 청주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청북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친숙하다고나 할까? 이번 답사 일정에 있는 화양구곡 또한 어렸을 때 소풍이나 가족과 함께 휴가철에 주로 가곤했었다. 깎아놓은 듯 한 절벽도 그대로였다. 충청남북도를 한 바퀴 돌아 전라남도 마량에 도착하였다. 마량에는 동백정이 유명한데 김유정의 봄봄에 나오는 노란 동백꽃이 아닌 붉은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붉은 꽃송이가 빼곡하게 피어있었다. 동백꽃 사이로 지는 태양은 날씨는 추웠지만 무엇보다도 뜨거워 보였다.

둘째 날 정읍에서 동학농민의 혁명정신을 배우고 정읍사기념공원에서 학우들의 발표를 듣고 책자를 보며 새로운 내용을 알아갔다. 그 후 남원으로 달려간 우리는 광한루에 빠져있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만났었던 그네도 타고 돌다리도 건너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전라북도의 따듯한 봄 햇살을 맞으며 광한루원을 거닐었다. 전라도는 강원도와 다르게 꽃도 더 빨리 많이 피어있었다. 광한루원 주변에 서서히 피고 있는 벚꽃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셋째 날 춘향이의 고장 남원의 뒤로한 채 회진항으로 출발했다. 같은 바다여도 남해는 가본 적이 몇 번 없기 때문에 어떨지 매우 궁금했다. 사실 생각만큼 바다같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항구라서 그럴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근처의 이청준 생가는 '선학동나그네' 세트장으로 꾸며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또 친환경 연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마을 전체가 유채꽃으로 뒤덮여있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노란 유채꽃들 사이에서 유채꽃과 하나가 되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른 봄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화려함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이어서 보성 녹차밭을 관람했다. 아직은 어린잎이 자라지 않아 파릇한 녹색은 아니었지만 짙은 녹색의 녹차나무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시간이 촉박하여 얼마 둘러보지 못했지만 경사지게 자라있는 녹차나무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서둘러 여수 향일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이번 답사의 평가회를 하였다. 다들 시간이 짧았기에 조금 아쉬웠다 말하기도 하고 별 탈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큰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즐겁게 소화한 것 같아 기뻐다.

마지막 날 향일암에서의 일출을 정말 보고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동도로 향했다. 오동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계속 육지인 것 같았다. 오히려 오동도에서 바라본 육지가 섬인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음악에 맞춰 나오는 분수공원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탐방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몸은 피곤한 3박 4일이었지만 마음과 머리만큼은 든든해지는 여행이었다.

답사 후기

20091128 이진희

대학교를 들어와 한국탐방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었고 너무나 새로웠었다.

대학을 입학해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었고 3박 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가보지 못했던 지역을 가보고 여러 선생님들의 생애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나를 들뜨게 했다. 하지만 가면 고생이 많고 버스에서 하루 종일 산다는 친구들의 말에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학교로 향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친해지지 못한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좋았고 무엇보다 교수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뜻 깊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았다.

7:30 에 학교를 출발하여 피산에 있는 홍범식고택을 둘러본 뒤 발표를 하고 정지용생가와 한용운생가를 다녀왔다. 첫째 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마량 동백정 이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추웠지만 해가 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었다. 저녁으로는 주꾸미를 먹고 첫째 날을 마무리하기위해 숙소로 향했다. 둘째 날 일출을 보고 정읍 등 남원을 들렀다. 버스에서 일어나보면 전북이었고 정읍사를 둘러보고 버스에서 쯤 자다 일어나보면 전남이었다. 마치 버스아저씨는 슈퍼맨 같았다. 남원은 내가 조사한 곳이었다. 조사할 때 사진으로만 보던 오작교는 사진에서 보다 훨씬 길었고 아름다웠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날씨도 화창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둘째 날을 마무리한 뒤 남원을 출발 하여 심청공원 등 여러 곳을 둘러본 뒤 유채꽃 밭이 있는 곳을 갔다 유채꽃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안 그래도 몸이 빠근해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있었는데 유채꽃 밭을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잊고 사진 찍는데 몸 힘든 줄도 몰랐었다. 그런 다음 보성 녹차 밭으로 향했다.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있었고 TV 로만 보던 녹차 밭이었는데 직접보고 “별거 없구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녹차 아이스크림에 눈이 팔려 녹차 밭은 올라가보지도 않고 버스에 올랐다.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여수로 향했다. 마지막 석식이어서 그런지 회도 나왔고 3박 4일 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오동도를 관람한 뒤 우리는 춘천으로 발길을 돌렸다.

답사란 거 한번쯤은 다녀와도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다. 버스로 장시간을 이동해 내렸다 탔다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힘든 건 한순간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러 시인과 문학인들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여러 곳을 둘러본다는 것은 내 대학 생활에서 뜻 깊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문학 탐방

20051114 박경남

녹의홍상 선녀 하강하듯
추천 뛰던 춘향이의 얼이
스미는 듯

탐관오리의 기름진 배
징벌하던 임꺽정의 혼이
느껴지는 듯

천하절색의 뛰어난 학식
예인 황진이의 모습이
눈 앞에 있는 듯

맹인 아버지 눈 뜨게
효녀 심청 인당수에 풍덩
그 소리 들리는 듯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흘날리는 바람결에
옛 숨결 속에
반짝이는 눈빛 속에
깊이 새긴 마음속에

포로로
녹아 들어간 한국의 정취!

유채꽃 향기에 취하며

20071112 김유리

오랜만에 새벽공기를 맡으며 학교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1 학년 فوت했던 그 시간에 낯선 곳들로부터 여행과 함께 문학을 배우는 탐방을 가게 되었었다. 이곳저곳을 돌며 문학을 배우는 탐방이기에 버스를 하루 종일 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버스만 하루 종일 타고 내 몸을 지치게 하는 탐방이 지루하고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어 괜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도 들었고 개인적인 안 좋은 일까지 생기게 되어 당시 내 마음은 탐방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추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1 학년 때 갔던 문화탐방이 조그마한 추억으로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다.

다음연도에도 가고 싶었던 탐방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탐방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였다. 그래서 기대가 되었고 설레기도 했다.

오랜만에 맑은 아침공기에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잠을 청하는 것이 3박 4일 일정에 힘들어질 몸을 조금이나 위로하고 충전해 줄 수 있다. 잔잔한 멜로디에 눈이 차츰 감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달콤한 잠에서 깨어보니 휴게소였다. 굶주린 배를 조금 채우려 버스에서 내렸다. 내리는 동시에 춥다. 라는 말이 바로 나왔다.

탐방 첫 날은 매우 추웠고 봄 날씨 만끽하며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얇은 바람막이만 입고 왔는데 라는 생각에 3박 4일 일정이 많이 걱정이 되었다.

차근차근 지는 해를 보면서 배경에 감탄하기 보다는 진정한 추위를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인지 탐방 첫 날은 추위와 싸우며 제대로 된 여행과 문학을 배우지 못해서 후회만 남았다. 그래도 식욕이 과한 난 쭈꾸미 축제에서 먹었던 쭈꾸미를 아직도 잊을 순 없었다.

추위와 싸워서인지 첫날은 몸이 너무 피곤했고 감기에 노출 될까봐 괜한 조바심에 일찍 잠이 들었다. 돌이켜 생각해 봐도 첫날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 아쉬운 탐방 첫날 이었다.

하늘은 추위와 싸워서 이겨서 인지 둘째 날은 해가 쨍쨍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스했다.

둘째 날부터 남는 건 사진뿐이 없다는 말처럼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친구들이랑 찍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직 어려서 귀여운 09 후배들이 랑도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배 언니 오빠들과도 찍은 사진도 나중엔 아련한 추억이 되어 사진을 보고 당시 그 탐방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괜 시리 좋아진다.

최대한 남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보고 싶어 이 포즈 저 포즈 취하느라 정신없었던 이 날에 갔었던 남원이 제일 멋있었다.

멋있다? 아니 좋았다. 눈을 돌릴 때 마다 아름다운 배경에 감탄을 연발했고 캐주얼한 드라마에서 봤던 뒤에 배경보다 실제로 본 남원 드라마 배경 남원보다 더 아름다웠다.

남원에서는 작년 오춘택교수님께 배웠던 춘향전이 생각이 났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문학 공간에 마치 내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왠지 모를 기분에 좋았다.

아름답게 그녀를 탔던 준향이처럼 나도 그녀를 타보았다. 그녀를 타본 소감은 그냥 무서웠다. 기회가 되어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곳에 남원은 당당하게 순위를 얻었다.

힘들기보단 재미있었던 일정을 마치고 숙소를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좀 쉬다가 우연히 시작된 마피아 게임에 푸욱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생각보다 마피아의 매력은 생각보다 더 높았고 시간이 언제 흐르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다음날 일정이 있어 둘째날의 마피아 게임은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셋째 날에 버스에 올라서도 마피아 게임 얘기는 계속되었고 결국엔 버스에서 게임을 시작했다. 답답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마피아 게임은 나에게 탐방에서의 또 다른 추억을 안겨주었다.

탐방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기쁨 또한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유채꽃은 너무나도 예뻐다.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예쁜 풍경에 취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된 것 같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 없다.

조금은 뻑뻑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린 여수. 그 곳에서도 표현 할 수 없는 배경을 보았고 사진에 담아 간직하고 있다. 사진 뿐 아니라 머리 눈에도 담아두었다. 이렇듯 요번 탐방에선 풍경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의 배경은 다 각기 개성을 보여주었고 그 개성에 나 또한 매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탐방이란 문학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지만 더 많은 인생수업을 선물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뻑뻑해서 힘들었지만 조금 더 많은 배경을 그 시간에 볼 수 있었다면 기쁨은 세 배 아니 수만 가지처럼 컸을 것이다.

아련한 추억을 남겨준 3학년 탐방 때문인지 작년에 가지 못했던 것에 미련한 아쉬움이 남아진다.

앞에도 말 했듯이 그 장소에 가면 그 문학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준다.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지만 배움보다 더 중요한 선후배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후배들과 잔잔한 대화를 나누며 나를 소개하는 것 또한 정말 좋았다.

3박 4일 동안 많은걸 보고 느꼈다. 사실 스스로 시간 내서 내가 갔던 곳들을 여행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난 탐방이 좋다. 대학교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내년에도 가고 싶다. 내년엔 또 다른 일이 내 기억에 남아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아 난 또 다른 생각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은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채꽃에 취하는 것 또한 나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4학년 탐방엔 취직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차갑게 변해버린 내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추억을 안겨 주는 탐방이야 말로 대학교에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친구로 인해 더 많은걸 보고 배우고 깨달음을 주는 탐방이란 친구를 난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이다. 고마워, 탐방아 내년에도 또 부탁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련한 추억을 남겨줘 난 보답으로 열심히 공부할게.

문학책을 고쳐매며

20091130 임승희

시인의 숨결을 찾아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 달린다.

흔들흔들 대노라면
내가 안고 있던 문학책까지
덩달아 흔들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건 왜일지.

“딱딱한 텍스트(Text) 속에서 만 존재해왔던
그들을 일체 부정하는 흔들림.”

그들의 진짜 시적 세계를
찾아 떠나는 작품 여행

그들의 살아 생전 자취를
보고 느끼며

머리론 이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며 돌아온다.

돌아오고 난 후,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린다.

웬지 흔들리지 않는다

미지

20091131 장원석

한 발자국 다가설 때
알지 못 할 그들의 생각이
두 발자국 다가설 때
알지 못 할 그들의 고뇌가
내 가슴에 조금씩 느껴진다.

알지 못한 그 낯선곳에
내 발을 드리우면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들의 흔적

알지 못한 그 낯선곳에
이제는 내 마음을 열어둡니다.
알지 못할 그들의 고뇌에
나는 귀를 기울입니다.

즐거은 탐방 이야기

20091134 정우리

처음으로 가보는 한국문학탐방. 학교에 입학한 후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과 함께하는 첫 탐방이라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컸다. 탐방을 가기 전에 따로 모여서 발표수업을 하고, 가는 곳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탐방 날이 되고, 첫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사흘 안에 다 돌아야 해서 그런지 일정이 꽤 빡빡했고, 버스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 이곳저곳 유적지들을 많이 둘러보고, 발표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곳들을 보니 새롭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렇게 무사히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밤에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고,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둘째 날 새벽, 일출을 보러 갔어야 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 갔다 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 좋았다고, 일출이 너무 예뻐했다고 했다. 순간, ‘아, 나도 갔다 오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 이 들었고 일출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오전이 돼서 본격적으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고 첫째 날과 다르게 일정이 빡빡했다. 둘째 날에 갔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광한루이다. 광한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우와” 라는 탄성부터 나왔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 관람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당나귀도 타 보고, 평소에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둘째 날 역시 숙소로 도착해서 저녁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피곤한 탓이었는지 자리가 끝나자마자 씻고, 바로 잠이 들었다.

셋째 날도 새벽에 일출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셋째 날은 꼭 집에 가는 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곤이 겹쳐서 그런지 버스 안에서 계속 잠만 잔 것 같다. 셋째 날에 갔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보성 녹차밭이다. TV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TV에서 봤던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녹차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었다.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먹었는데 시중에서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과 별 다른 게 없어서 좀 실망했다. 그래도 색깔 하나는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서 먹음직스러웠다. 셋째 날에는 저녁도 꽤 거창하게 먹었다. 싱싱한 회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아주 푸짐하게 저녁식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밤이라 그런지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또 그만큼 재미있었다.

한국문학탐방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일정이 빡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탐방을 즐길 수 있었다. 맨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오동도였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춤추는 분수대와 바다인데, 음악에 맞춰 분수대의 물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환상적이었다. 오동도에서 바라본 바다 또한 잊혀 지지 않는다. 넓고 푸른 바다와 출렁거리는 물살. 오랜만에 본 바다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탐방을 마치고 아쉬운 마음 반, 흥가분한 마음 반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일정이 빡빡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3박 4일 동안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 처음 가보는 탐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이 긴장했는데,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탐방은 개인적으로 얻을 게 많은 시간이었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동백

20051124 신하늬

녹빛 매끄러운 잎사귀들 사이로
붉은 얼굴 옹기종기 노란 속살 품었네
휘모는 바람에도 홍조로 화답하는
저 따스한 동백들

나

20071123 시민경

일상으로부터 도피를 위해
짐을 꾸린다.
간단한 짐과 가벼운 마음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수십 명 속에 또 다른 나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 모습만 있을 뿐이다.
내일은 어떠한 내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하루 변해야만 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럴 때면 고요히 떠나온 곳에서
작가들에게 물어본다.
“지금 제 모습 어떠세요?”

나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잃어 어찌지 못 할 때
가벼움으로 길을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으로서

일출

20091135 조기현

고요한 정적
해가 떠 오른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가 떠 오른다
아침의 정적을 밝히는
해가 떠 오른다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

20091136 조연수

답사를 떠나기 전에 학교를 입학한 후 처음으로 과 사람들과 여행을 떠난다는 기분에 매우 들떠있었다. 그리고 답사를 떠나는 날, 학교 중앙관에 모여 버스를 타고 먼저 괴산군에 홍범식 고택으로 출발했다. 고택을 구경한 후, 그 다음으로 화양구곡을 갔다. 화양구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왼쪽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발표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할 때에도 발표를 들으면서도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화양구곡에서의 구경을 마치고, 정지용 생가 한용운의 생가의 구경을 마치고 하루 일정의 마지막으로 마량 동백정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계단을 한참 올라 꼭대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가파른 계단에 오르거나 일몰을 보는데 추위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것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각자의 카메라로 사진을 한참 찍고 해가 완전히 지는 것까지 보고 내려오면서도 일몰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첫째날은 마량 동백정으로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숙소로 들어갔다. 둘째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일출 보는 것을 아쉽게 놓치고 무성서원으로 갔다. 무성서원은 가사비보다는 주변 풍경에 볼 것이 많았다.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남원 만복사기에 갔다가 기대하고 있었던 남원 광한루원에 도착하였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먼저 발표를 듣고 자유 시간을 받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사진을 많이 찍었을 정도로 풍경이 좋았다. 구경을 다하고 모여서 저녁을 먹고 두 번째 숙소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원을 떠나 장흥으로 가서 백관홍 가사비를 보고 송기숙의 생가를 갔다. 내가 송기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어서 그런지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 감회가 새로웠다. 그 다음 회진항에 가서 점심을 먹고 회진포구로 나가 발표를 듣고 구경을 했다. 이청준 생가에서는 생가보다는 넓게 펼쳐져 있는 유채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발표가 끝나고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놓을 정도였다. 다음 장소인 보성 녹차밭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녹차를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녹차 밭 구경을 끝내고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수 향일암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잤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나갔다. 일출을 보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사진을 찍고 내려왔다.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출을 보고 정상에 올라갔다 와서 뿌듯했지만 너무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해서 아쉬웠다. 너무 힘들었던 터라 아침을 맛있게 먹고 오동도로 갔다. 오동도에서는 오랜만에 등산에 힘들어서 분수대 앞에서만 있었으나,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 분수를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오동도 관광을 일정의 마지막으로 점심을 먹고 춘천으로 돌아왔다.

대학 들어와서 첫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내년에도 반드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많은 작가들의 생가를 다녀오고 느끼게 된 것도 많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동기들, 선배들과 3박 4일을 보내면서 정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가는구나’를 느꼈다. 이 기행문을 쓰면서 그 때의 소중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 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그 순간순간이 그리웠다.

‘일출’

20091138 주소현

떠오른다 떠오른다 빠알간 희망의 태양
떠오른다 떠오른다 희망찬 오늘의 시간
떠오른다 떠오른다 마음속 깊은 곳 외침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한없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인내의 시간
한 순간의 짧은 시간속 역만장자의 주머니속 풍경

영원할 것 처럼 타올라서 금세 사라져가는
오래된 즐거움보다 잠깐의 감동을 선사해주는
가슴 밑 바닥속의 열정마저 끌어올려버리는 그림

마음 속 외침이 하나 둘 셋, 늘어갈때마다
더 붉게, 더 진하게 떠오르는 시간의 아름다움 일출
내 눈이 멀기전에 이 풍경을 눈으로 담아가게 해주오

마음속 헛된 욕심이 하나 둘 셋, 질어질때마다
더 검게, 더 악하게 질어지는 시간의 사라지는 일출
내 욕심이 더 하기전에 이 풍경을 기억하게 해주오

지지마라 지지마라 붉은 빛 희망의 태양
지지마라 지지마라 지나간 어제의 시간
지지마라 지지마라 숨겨둔 마음의 진실함

아침의 만남

20061115 박정성

향일암을 향하는 아침
푸른 나무들의 길 안내를 받으며

엄마 품 속에 안기려는
아이의 발걸음으로 오른
세상의 젓봉우리 끝

푸른 부채로 세상을 부치고 있는
이 땅을 만들고 기뻐했던 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전봇대

20091140 최순택

검정고무줄을 목에 매고 하루종일 서있는다
참새의 놀이터가 되어주기 위해

지나가는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오물을 끼얹어도
전봇대는 귀엽게 봐준다

밤이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 위해
머리에 불을 키고 아침을 기다린다

봄날

20071127 우혜민

유리창 위에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새롭게 그려
새 세상을 만들 생각으로
뿌옇게 흐려 놓았다.

흐려 놓은 풍경에
산뜻하고 고운 빛깔로
정성스럽게 색칠하면

봄은 우리 곁에서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태어난다.

소리, 한(恨), 비상학(飛上鶴)

20001004 권혁기

소리 하나에 한(恨)이 날아간다
한이 날아가니 학도 같이 나는구나

한번 날은 학, 언젠가 내려오니
한도 다시 드는구나

한이 다시 드니
다시 소리 하나 뿜는다

어찌 가슴 깊이 맺힌 한
쉽게 풀리리

쉽게 풀 수 없기에
오늘도 소리를 뿜는다

3 박 4 일 동안의 배움 그리고 추억

20091141 최유정

2009년 4월 1일 대학 와서 처음으로 떠나는 3박 4일 동안의 야외수업. 강의실을 벗어나 서 하는 수업이니 만큼 설렘이 매우 컸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괴산군 홍범식 고택에 도착했다. 상당히 멋스러운 분위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웅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큰 고택이었고, 특히 옛날 정취가 남아있어서 좋았다. 첫째 날에는 송시열을 느낄 수 있는 화양구곡에도 다녀왔고, 정지용의 생가, 한용운의 생가도 다녀왔었다. 정지용의 생가는 정지용 문학촌이라고 해서 정지용에 관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아침에 아쉽게도 일출을 다 같이 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나름 일찍 나와서 일출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둘째 날에 가장 기억이 남았던 곳은 바로 남원 광한루에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는 자유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고, 여러 곳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배를 잠시나마 탔던 것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결국 관리직원에게 한소리 듣기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것을 빼고는 선배들하고 많은 사진을 찍고,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셋째 날에는 내가 조사했던 이청준의 생가를 들렸다. 조사를 미리해서 인지 사진으로 보았던 곳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청준의 생가 역시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쉽기만 했다. 이청준 생가의 이어서 인상 깊었던 곳은 보성 녹차밭이었다. 항상 TV에서 보았던 녹차밭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날씨가 흐렸던 탓이어서 상상했던 거 보다는 멋지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사진도 찍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온 한국문학탐방은 매우 빡빡한 일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틈나는 대로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은 추억을 남겼던 것 같다. 특히 다른 학교 다른 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내가 조사했던 만큼 그 장소에 들려 '아 이곳은 이런 곳이었지!' 하면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탐방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일단 발표를 각각 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 그 장소에 대해서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도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는다.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번 탐방 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추억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처음으로 한 3박 4일의 야외수업은 매우 재미있었고 대학생들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다.

속삭임

20091144 한태성

슈우우
바람이 분다

좌아아
파도치는 녹색 물결

바람은 성긴 머리빗
가볍게 다가와
날 쓸어 넘긴다

난 바람에게
녹색 울음을 외친다